

찰잔 속에 담긴 나를 보고 올 수 있는 곳



2000년에 지어진 수종사 다실 삼정헌은 시·선·차가 하나되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수종사 전경



해탈문 앞 세조가 쉬었다는 은행나무

차향이 있는 절 - 남양주 수종사(水鐘寺)

구름 따라 여기에 와 그윽한 곳 사랑하니 / 언덕에 끌린 정,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우습구나 / 곱고고운 초승달 맑게 갠 저녁에 떠오르고 / 옅은 안개 서린 언덕엔 석양 노을 비친다. / 뜻 높은 선비야 누가 오겠나 / 자리가 높아지고 좋을 텐 소원해지기 쉬운 것 / 강 가까이 숲이 깊어 찾는 이가 드무니 / 이 중에 좋은 벗, 반은 불고기와 새이라

다실(茶室)이라고도 불리는 차의 거인 초의 선사(1786~1866)가 석옥 화상의 시에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 '수종사차석옥화상운' 12수중의 하나다. 시 속의 수종사는 두물머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기슭에 있다. 1830년 가을부터 초의 스님은 수종사에 머물렀고, 그 해 겨울에 위의 시를 썼다. 초의 스님이 지나치지 못하고 머문 것을 보면 수종사는 차향이 깃든 도량임을 짐작케 한다.

수종사 가는 길

큰 도로에서 수종사 밖에 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면 그 때부터 가파른 길이다. 5월의 숲이 그 가파른 길을 거뜬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이'라고 하기에 너무 커버린 아이처럼, '봄비'라고 하기에 너무 목적해진 봄비가 숲을 적시고 있다. 약 1.7km 쯤 걸으면 일주문이다. 일주문까지는 차량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차량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숨이 턱 밑에 가득 찰 때쯤, 숲 너머에서 묵탁 소리와 예쁜 소리가 들려온다. 일주문에서 300m쯤 걸으면 미륵불상이 보이고, 200m 쯤 오르면 절 마당이 드러난다.

詩·禪·차가 하나되는 도량

짐작대로 수종사는 차향이 깃들어 있는 도량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다. 차의 거인 초의 선사와 다산 정약용(1762~1836),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이곳에서 함께 차를 즐겼고, 그들처럼 차를 '누릴' 수 있는 삼정헌(三鼎軒)이란 다실이 있기 때문이다. 수종사는 조선 중후기에 차인들의 '터'였다. 초의 스님을 비롯해 다산, 추사, 추사의 아우 김명희, 정조의 부마 홍현주, 다산의 아들 학연 등 차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다. 이처럼 많은 차인들이 수종사를 찾았던 이유는 수종사의 석간수 때문이다. 물맛이 일품이다. 맛뿐만이 아니라 물 자체가 명품이다.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수종사를 찾았다고 한다. 단 한 평의 차밭도 없는 도량에 많은 차인들이 차를 들고 모여들었다. 그렇게 수종사는 차향이 이어져오는 도량이다. 일지암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초의 스님도 수종사를 지나치지 못했다.

다실 삼정헌은 지난 2000년에 지어졌다. 삼정헌은 시(詩), 선(禪), 차(茶)가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삼정헌은 차를 파는 곳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절에 딸린 찻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당이나 후원처럼 사부대중이 주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차를 체험하고 누리는 곳이다. 곧 수행의 공간이다. 묵연까지는 아니어도 말을 줄이고 낮춰야 하며, 차와 더불어 있는 동안의 의미 있는 시간이야 한다. 수종사가 삼정헌이란 공간을 마련한 취지다. 삼정헌 벽에는 '자연방하(自然放下)'와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글이 걸려 있다.

수종사는 등산로의 산장 같은 도량이다. 꼭 불자가 아니라라도 운길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수종사를 거쳐 간다. 삼정헌은 늘 만원이다. 등산객이 많은 절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포천에서 왔다는 한 방문객은 다른 종교인이지만 수종사엔 삼정헌이 있

어서 자주 온다고 했다. 특히 오늘같이 비라도 오는 날엔 삼정헌이 생각난다고 했다. 맑은 차 한 잔을 들이 올리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종교를 떠난 차이라고 말했다. 수종사는 다도반 수종다회도 운영하고 있다. 사찰예절과 다도예절을 배울 수 있다.

'차'는 음식인 동시에 '세계'다. 어디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찻잔을 들고 있는 시간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래서 '다도(茶道)'라고 하는 것 같다. 물 안개 밑으로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찻잔 앞에 앉아볼 일이다. 차를 물렸던 사람이든 알고 있는 사람이든 수종사에 가면 찻잔 앞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찻잔 속에 담긴 나를 보고 올 수 있다.

수종사는

장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439년(세종 21) 세워진 정의옹주의 부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59년 세조의 명으로 크게 중창되었다. 세조가 신병치료차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물머리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 운길산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숲을 따라가 보니 천년고찰의 사지 바위벽에 18나한상이 줄지어 앉아있고 그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냈다. 이에 세조는 지금의 자리에 절을 복원하게 하고 절 이름을 수종사라 했다. 해탈문 앞에는 그 때 세조가 심은 은행나무가 있다. 정약용의 <유수종사기>에는 "수종사는 천년의 향기를 품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온 누리에 울리며 역사 속으로 걸어온 셈이다. 수종사는 신라 때 지은 고사인데 절에는 샘이 있어 돌 틈으로 흘러나와 땅에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낸다."고 적혀 있다. 1939년 태욱이 중수하고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뒤 1974년 주지 장해광 스님이 대웅보전 등을 복원했다. 1981년에 산신각, 종각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주변보기

<사찰>

▲ **봉선사** / 진전읍 봉선사길 32
전화-031-527-1956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다. 969년 법인국사 탄문이 창건하여 운악사라 하였다. 그 후 1469년(예종 1) 정희왕후 윤씨가 광릉의 세조를 추모하여 89칸으로 중창하고 봉선사라고 하였다. 1551년(명종 6)에는, 교종의 수사찰로 지정되어 승과시를 치르기도 하고, 전국 승려와 신도에 대한 교학진흥의 중추적 기관 역할을 하였다.

▲ **묘적사** / 와부읍 월문리 222
전화-031-577-1761
묘적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고려 때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세종 때 학원 스님이 중창했다. 일설에 따르면 국왕 직속의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유정이 승군을 훈련하는 장소로 썼으며, 임진

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는 스님들이 무과 시험을 준비하는 훈련장으로 썼다.

<가볼 만한 곳>

• **다산유적지(다산정약용 생가)** / 조안면 능내리 산 75-1
전화-031-590-2837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마을로 오랜 유배 생활 끝에 다산이 생을 마친 곳이다. 수종사에서 약 8km에 위치한 유적지에는 생가, 여유당, 업적과 자취가 전시된 다산기념관과 다산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는 다산문화관이 있다.
• **남양주 종합촬영소** / 조안면 북한강로 855번길 138
전화-031-579-0605
한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불리는 곳이다. '쉬리', '공동명비구역 JSA' 등 대표적인 한국영화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총 132만㎡ 부지 위에 10만㎡ 크기의 야외 세트장을 갖추고 있으며 운동장고택 및 한옥, 조가 세트, 실내촬영장까지 볼거리가 가득하다.

<숙박>

- 축령산자연휴양림 / 수동면 외방2리 280번지 전화-031-592-0681
- 스타힐리조트 / 화도읍 먹길로 96 전화031-594-1211

<식당>

- 운길산장 / 031-576-5952
가마솥 순두부, 백숙, 우렁쌈밥
- 운길산 국수촌 / 031-577-0717
잔치국수, 비빔국수
- 두물머리 / 031-576-8727
참숯불 장어구이, 곤드레밥 정식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3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마하연투어 ☎02)365-7747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손승모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차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